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77세 대통령 6선 위해 대선후보 연령상한 폐지 추진



동아프리카 지부티가 대선 출마 연령 제한 폐지를 추진하면서 올해 77세인 이스마일 오마르 갤레 현 대통령이 내년 4월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부티 의회는 26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75세를 넘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갤레 대통령은 내년 4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개헌안이 확정되면 1999년부터 집권한 갤레 대통령이 6선에 도전할 길이 열리게 된다.

델레이타 모하메드 딜레이타 의회 의장은 “의원 65명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다”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와 같은 불안정한 지역인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결정을 승인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갤레 대통령이 국민투표 없이 이를 승인하면 의회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2차 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한다.

2010년 개헌으로 3선 제한을 철폐한 갤레 대통령은 2021년 4월 대선에서는 97.4%의 높은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지부티의 성장과 안정을 견인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인권침해,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도 함께 받는다. 또한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언론인들이 정부 비판을 보도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인구 100만 명의 소국 지부티는 1977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이래 하산 굴레드 압티돈 초대 대통령(1977-1999년)과 그의 조카인 갤레 현 대통령 2명의 장기 집권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지부티는 아덴만과 홍해를 모두 접하며 수에즈 운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은 테러와 해적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아모스 5:7-8)

하나님, 장기 집권의 야욕으로 헌법마저 개헌하면서도 나라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갤레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탐욕과 부정을 제하여 주소서. 언론 탄압으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인권침해와 빈곤으로 혼란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땅에 더 이상의 독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소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식하는 지부티 백성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수단 반군, 병원서 환자·의료진 460명 살해…“수단 병원 공격은 전쟁범죄”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최근 장악한 서부 알파시르의 사우디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460명 이상이 살해됐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전날 성명에서 “경악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모든 환자와 의료시설은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보호돼야 하며, 이런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납치됐다는 보고도 받았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WHO에 따르면 2023년 내전 발발 이후 수단 내 의료시설 공격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185건으로, 1,204명이 숨지고 416명이 다쳤다. 올해는 49건이 발생해 966명이 사망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알파시르 주민들이 겪는 잔학 행위를 강하게 우려했다. RSF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군의 서부 최후 거점이던 북다르푸르주 주도 알파시르를 에워싸고 포위전을 벌인 끝에 지난 26일 알파시르를 점령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언 24:8-9,14)

하나님, 수단 반군이 산부인과 병원의 환자와 의료진 수백 명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앞에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사악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죄뿐인 부패한 심령에 죄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들려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납치된 의료진들을 속히 구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과 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사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환난 중에 낙심치 않는 믿음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탄자니아, 야당 배제 대선 후 전국적 시위 확산…최소 수백 명 사망 주장

탄자니아에서 제1·2야당 후보를 배제한 대통령 선거 이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29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했으며, 초반 개표 결과 득표율이 9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다음 날부터 수도 도도마와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시위가 폭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실탄을 사용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지방정부 청사와 경찰서 등이 불에 탔다. 전국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차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야당 ‘차데마’(CHADEMA)는 이번 사태로 최소 7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수치가 과장됐다”며 공식 집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민간인과 경찰관이 각각 1명씩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유엔은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이 숨졌다”며 과잉진압 의혹에 대한 독립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시위 현장과 군중 밀집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세아 10:12)

하나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야당 후보들을 배제한 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발생한 탄자니아를 의탁 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배제한 채 최루탄과 실탄으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현 정부를 꾸짖어 주시고 민간인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소서. 묵은 땅과 같은 탄자니아 영혼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기경하여 주사 여호와를 찾는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생명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흄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영어 기독학교 개교…“신앙과 학문을 함께 세운다”



루마니아 아라드(Arad)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온 어슈어드 호프 미니스트리(Assured Hope Ministries)는 학문적 우수성과 성경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 단체는 최근 레퓨지 포 더 소울(Refuge for the Soul)과 협력해 지역 최초의 영어 기독교 사립학교인 아다먼트 인터내셔널 센터(Adamant International Centre)를 개교했다.

지난달 문을 연 이 학교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교과과정을 통해 영어, 읽기, 쓰기, 수학을 가르치며, 모든 과목을 성경 말씀과 기독교 인격 형성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창립자 빌리 밀러(Billy Miller)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언어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커리큘럼 전반에 스며든 기독교 가치를 통해 인격을 세우고 삶의 목적을 심어주고자 한다”며 “주님께서 학문적 탁월함과 영적 성장을 아우르는 변화의 교육 현장을 열어주셨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전 세계 공립학교들이 따돌림, 마약, 도덕적 붕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루마니아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세속적인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 없이 방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슈어드 호프 미니스트리는 지난 8년간 루마니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이어왔다. 새 학교 개교 이후 학생들과 가정 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델이 루마니아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교실 밖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개교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이 담긴 수십 개의 배낭을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밀러는 “우리의 사명은 단순하다. 어둠 속에 복음의 희망과 빛을 전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길 잃은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를 루마니아에서 그분의 손과 발로 부르셨다”고 말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

이는 너희가 흄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흄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립보서 2:15)

하나님, 루마니아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단체가 기독학교를 세워 다음세대에게 성경 말씀과 기독교 가치관을 기초로 한 교육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통로 된 학교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흄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무리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WFP·FAO, 민주콩고 식량 위기 심화…2,600만 명 기아 위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인도주의 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극심한 식량 불안정이 지속되고 특히 동부 분쟁 지역의 긴급 기아 수준이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최신 통합식량안보 단계분류(IPC)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초까지 민주콩고 전역에서 2,660만 명이 위기 수준(3단계) 이상의 식량 불안정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90만 명은 긴급 단계(4단계)의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이는 현재 수치(2,480만 명 및 320만 명)보다 각각 증가한 것이다. 식량 위기는 특히 북키부, 남키부, 이투리, 탕가니카 등 동부 4개 주에서 가장 심각하다. 2026년 1월까지 이 지역의 1,000만 명 이상, 즉 지역 인구의 약 3분의 1이 위기 수준 이상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300만 명은 긴급 기아 단계에 있으며, 이는 전국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또한 2025년 3월 대비 7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세계식량계획 신시아 존스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지역 안정성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시편 140:12)

하나님, 내전 및 무력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주콩고에 식량 불안정까지 겹쳐 극심한 기아 위기에 놓인 이 땅을 돌봐주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들과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아픔과 기근을 면케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 말레이시아, 온라인 게임 포인트 잃은 9세 형이 6세 동생 흉기로 공격

말레이시아에서 9세 형이 온라인 게임 문제로 6세 동생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시스가 3일 말레이시아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새벽 5시 30분께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에서 발생했다. 잠에서 깬 어머니(40)는 목에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진 6세 아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피해 아동의 친형 A군(9)으로 밝혀졌다. 전날 동생이 실수로 형의 휴대전화를 고장 내면서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Roblox)에서 모아둔 약 100만 포인트를 잃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A군은 새벽에 흉기를 들고 동생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서 “가족을 해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며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 조호르 경찰청장은 “기해 아동이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심리 불안과 환청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모에게도 아동 방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45)

하나님, 어린 나이에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져 친동생을 향해 흉기로 공격을 가한 충격적인 소식에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복음이 없는 인생이 쌓는 것은 악이요, 나타내는 것 또한 악뿐임을 고백하오니 죄인들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차별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말레이시아 교회를 이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 나타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마스 지도자 딸, 예수 만난 간증 전해…“이슬람은 평화를 주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Hamas) 지도자의 딸이 이슬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자연적인 회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CBN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주만 알 카와스미(Juman Al Qawasmi)는 가자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하마스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한때 하마스 대원과 결혼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미워하고, 기독교인을 저주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저주하곤 했다. 꾸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믿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를 죽이신다고 배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일”이라고 회상했다.

알 카와스미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했을 당시를 기억하며, 조직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그들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팔레스타인인들조차 죽였다. 하마스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이슬람 신앙이 자신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다. 항상 무언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평화와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녀는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알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그녀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 예수님은 아랍어로 “너는 내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알 카와스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후,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찾았다고 고백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이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도서 3:11)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께서 마침내 때가 차매 오랫동안 하마스의 거짓에 속아 두려움 속에 살던 알 카와스미를 찾아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저주하도록 세뇌하며 권력을 위해 폭력과 살인으로 복종케 하는 하마스를 꾸짖으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해 불안에 떠는 가자지구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심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참된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국제 기도의 날’ 맞아 박해받는 성도 위한 기도 촉구

지난 2일 ‘국제 기도의 날’(IDOP)을 맞아, 미국 순교자의소리(VOM) 부대표 토드 네틀턴은 박해받는 신자들의 사례를 전하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3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틀턴은 최근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를 방문했으며, 인도의 한 목사 사례를 소개했다. 이 목사는 4개월 투옥 중 무슬림 죄수의 도움을 받아 보호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낙심했다. 그는 “함께 기도할 동료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고, 며칠 뒤 또 다른 목사가 체포돼 같은 감방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신앙을 지켰고 결국 석방됐다. 네틀턴은 이를 “성도의 교제가 가져온 기적”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 ‘2025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인도는 11위이며, 힌두뜨바 사상과 개종금지법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가족과 공동체의 압박, 폭행,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전 세계 약 3억8천만 명, 즉 7명 중 1명이 신앙으로 박해받는다고 밝혔다. 순교자의소리는 올해 기도의 날을 맞아 무료 기도자료 키트를 배포하며, 네틀턴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며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

하나님, 국제 기도의 날을 맞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로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날마다 생생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써 굳게 하여 주사 복음과 기도로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열방과 내가 하나 된 영광을 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는 예수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 독일, ‘신정국가 수립’ 주장 무슬림 단체 강제 해산

독일에서 이슬람 신정국가를 세우겠다고 주장한 무슬림 단체가 강제 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독일 내무부는 5일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유대인을 둘러싼 민족 갈등을 조장한다며 ‘무슬림 인터액티브’의 활동을 금지했다. 당국은 함부르크에 있는 관련 시설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들어갔다. 무슬림 인터액티브는 지난해 4월 함부르크 시내에서 칼리프국(이슬람 신정일치 국가) 수립을 내걸고 집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단체는 이슬람이 유일한 사회질서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국가 존립 권한을 부정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이슬람 통합국가를 추구하는 정치단체 ‘히즈브 우트타흐리르’(이슬람해방당)의 이념을 따른다. 독일 정부는 급진 무슬림 단체들이 자국 내 유대인 위협과 이슬람 무장세력과의 연관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작년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함부르크이슬람센터(IZH) 등 단체 2곳을 해체한 바 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22)

하나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이슬람이 유일한 사회질서라고 주장하며 독일 안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한 무슬림 단체를 의탁 드립니다. 이런 급진 무슬림 단체들이 감시 대상이 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독일 교회를 깨워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 해 이슬람의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가려진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